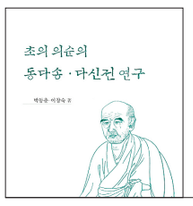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9~5/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6	붓다 아함에서 묘법까지	황명찬	지혜의나무
2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서정형	공감과소통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8	법구경	이종기/이우경	운주사
4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앉은 자리에서 부처 되기 :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설	추범 해설	소쿠리
5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10	다시 돌아가 만나기가 어렵다	산티데바/하도겸	시간여행

책세상

새로 쓴 〈동다송〉과 〈다신전〉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 연구
박동춘 · 이창숙 저/ 이른아침 펴냄/ 1만8천원

'석경각본' 모본으로 새 번역 · 해설
초의선사 생애 · 저술 · 편찬 배경
원문 · 번역문 초의선사 연표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동다송〉과 〈다신전〉이 출간됐다. 박동춘 · 이창숙의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 연구〉이다.

〈동다송〉과 〈다신전〉은 조선 후기에 초의 선사가 지은 것으로 차의 모든 것을 다뤘다고 할 수 있는 경전이며 차와 선의 일치를 주창한 다삼매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다송〉 판본은 아모레퍼시픽본이 주류였는데, 이 판본은 오탈자가 많아 본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후 몇 종의 필사본 〈동다송〉이 발굴됐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초의의 친필본 〈동다송〉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이었다. 그 후 송광사에서 다송자의 〈백열록〉에 수록된 〈동다송〉이 발굴되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2014년에 초의와 교유했던 구명회 소장 필사본이 경매를 통해 알려지는데, '석경각본'이라고 한다. 석경각본 첫 장에는 "해거도인(홍현주를 뜻함)이 차 만드는 상황을 물으시기에 마침내 동다송 일편을 조심스럽게 지어 답합니다."고 초의 선사가 적고 있다. 이는 석경각본이 적어도 초의가 열람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초의의 친필본 자료와 동일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 연구〉는 이 석경각본을 저본으로 번역됐다.

책의 제1장 '다성 초의'는 초의 선사의 생애, 〈다신전〉의 편찬 배경, 〈동다송〉의 저술 배경 등을 소개한다. 제2장 '다신전과 동다송'은 〈다신전〉 원문 및 번역문과 〈동다송〉 원문 및 번역문을 소개한다. 제3장 '초의 차의 예찬'은 금령 박영보의 〈남다병서〉 저술 배경 그리고 원문 및 번역문, 자하 신위의 〈남다시병서〉 저술 배경, 〈남다시병서〉 원문 및 번역문을 소개한다. 제4장에는 초의 선사의 연표가 실렸다.

초의 선사는 조선 후기에 사라져가는 차문화를 일으켜 세운 다성이자 숭유억불의 시대에 임금으로부터 시호를 받은 선사이다. 어린 나이에 운흥사 벽봉 스님 아래서 출가한 그는 완호 스님과 불연을 맺고 대흥사로 수행처를 옮기면서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다산 정약용을 만나 학연을 맺고, 이후 다산의 아들 정학연을 만나고 추사 김정희로 인연이 이어진다.



저자 박동춘은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초의가 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수행처를 대흥사로 옮긴 1809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대흥사에는 아암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완호 등 차에 밝은 스님들이 있었고,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선종 사찰의 음다 풍속이 근근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1809년 다산을 흠모한 그가 강진 초당을 찾았을 때, 다산의 차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초의는 1815년 처음으로 한양에서 추사를 만날 때 예물로 차를 준비했다. 학림암의 첫 만남에서 추사는 연경을 방문했을 때 옹방강을 만난 일과 완원에게 대접받은 용봉승설차의 감동적인 차의 풍미를 초의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의는 꿈에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차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초의차는 제주 유배 시절 추사로부터 '다삼매를 나툰 차'라 인정받았다.

초의가 '초의차'를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명대를 풍미한 산차 제다법에 천착하여 제다법의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1837년 홍현주의 부탁으로 쓴 〈동다송〉은 차의 가치와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의미 있는 일이다.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초의를 '전다박사'라고 했다. 이는 그가 차에 밝은 수행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진가를 논증할 다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저자 박동춘은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다도전게'를 받음으로써 조선 후기 초의 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차의 적통인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받았다. 또한 한국 차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해 왔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이사장 · 소장)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 제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초의스님 전상서〉 등이 있다.

저자 이창숙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예문화와 다도학과 초빙교수, 문화살림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茶 본연의 심신수양 '한국수양다도'



차와 수양
최성민 지음/ 책과 나무/ 1만8천원

한국 전통 차문화의 수양론적 다도와 대중적 · 실용적 차생활을 조명한 신간이다. 책 〈차와 수양〉은 차와 다도 본연의 심신수양 원리를 밝히고 차생활의 일상화를 통한 힐링으로 안내한다.

부제 '동양사상 수양론과 한국수양다도'가 붙은 책은 한국차의 향 · 색 · 맛에 담긴 심신수양 원리를 기론(氣論)과 선현들의 체험으로 '한국수양다도'를 제시한다.

차는 당대(唐代) 육우가 〈다경〉을 저술한 무렵부터 '다도(茶道)'라는 뛰어난 정신문화와 함께 해 왔다. 다도는 곧 차의 본질이면서 정체성이자 다른 음료나 물상이 갖지 못한 차별성인 것이다. 도(道)는 동양사상 공유의 수양 언어이므로 다도는 곧 차를 매개로 한 수양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유 · 불 · 도(儒佛道) 사상의 수양 · 수행 · 양생을 관통하는 수양원리가 동양사상 공유의 기론에 있음을 파악하고, 선현들의 문헌에서 실증적인 실천 사례를 찾아 '한국수양다도'를 현대의 마음공부법으로 제시한다.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한국 수양다도의 모색〉을 보완하고 다도 수양과 진정한 차생활 및 차의 본질 이해를 위해 동양 사상 수양론 전반을 다루고 '한국수양다도'의 이해로 이어진다.

제1장 '동양 사상 수양론'은 수양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게 한다. 동양사상 수양론 전반을 유기적 총론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목표인 한국수양다도의 이해를 위한 기초 공부다.

제2장 '동양사상 수양론과 차'에서는 다도가 근본적으로 수양론이라는 것, 그수양의 기제가 동양사상의 기론에서 말하는 '기의 원리'라는 것, 다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차향과 차색과 차맛임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차계와 차학계가 '다도'의 수양론적 의미를 해석해 내지 못하고 형식 위주의 계급편향성 '다례'에 매몰돼 있는 원인을 찾아준다.

제3장 '한국수양다도'는 1장과 2장에서 이어지는 결론이다. 한국수양다도는 세계 유일의 동양사상 기론에 입각한 자연과학적 수양론임을 확인하며 차는 어떤 원리로 우리의 심신을 정화하고 무명에서 깨어나게 해 주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유불도의 수양론과 연계하여 어떻게 한국수양다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선현들의 증언을 좇아 모색한다.

▲저자 최성민(철학박사)은?

서울대(교육학), 성균관대 대학원(한국 철학)을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창간 발의인, 편집국 문화부 기자, 여론매체부장, 논설위원 역임했다. 2003년부터 전남 곡성에 산절로야생다원 조성, 야생수제차 '산절로' 제다와 보급을 하고 있다. 2018년 (사)남도정통제다 · 다도보존연구소 설립, 전통 제다와 수양다도 보존 · 계발 및 '동양사상 수양론과 수양다도' 연구. 2019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 · 문화학과 생활예절 · 다도 전공 초빙교수로 2019년부터 연중 한국수양다도 보급 프로그램 '힐링 곡성 야생차포레스트'를 기획하여 이론 · 실습 · 체험 위주의 '정통 야생수제차 제다 · 동양 사상 수양론과 한국수양다도' 강좌를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차의 귀향〉, 〈차 만드는 사람들〉, 〈지허스님의 차〉 등 다수가 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 강 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